

TDB 경기동향조사(전국) - 2017년 8월 조사 -

소비세율인상 이후 최고치 갱신

~ 일부 업종과 지역에 장마의 영향이 나타났으나 내구소비재의 호조로 회복이 지속 ~

(조사대상 2만 3,621 사, 유효회답 1만 265 사, 회답율 43.5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 포인트

1. 2017년 8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.1포인트 증가한 47.7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. 국내경기는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장마의 영향이 나타났으나 내구소비재의 판매호조 등으로 소비세율인상 후 최고치를 갱신하며 회복이 지속되었다. 향후 국내 경기는 건조한 외수에 더하여 설비투자나 개인소비와 같은 내수관련의 확대가 기대되는 점에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2. 『도매』 『소매』 『서비스』 등 7개 업계가 개선, 『농·임·수산』 등 3개 업계가 악화되었다. 가계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구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『소매』의 체감경기가 상승하였으며, 재해복구·부흥공사나 도쿄올림픽수요에 동반하여 건축자재관련의 체감경기도 개선되었다.
3. 『토카이』 『츄고쿠』 등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되었으며, 모두 소비세율인상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였다. 『토호쿠』 등 3개 지역이 악화, 『미나미칸토』 등 2개 지역이 보합되었다. 공공공사의 증가와 자동차·반도체 등이 호재로였다. 한편 장마가 지속된 지역은 악화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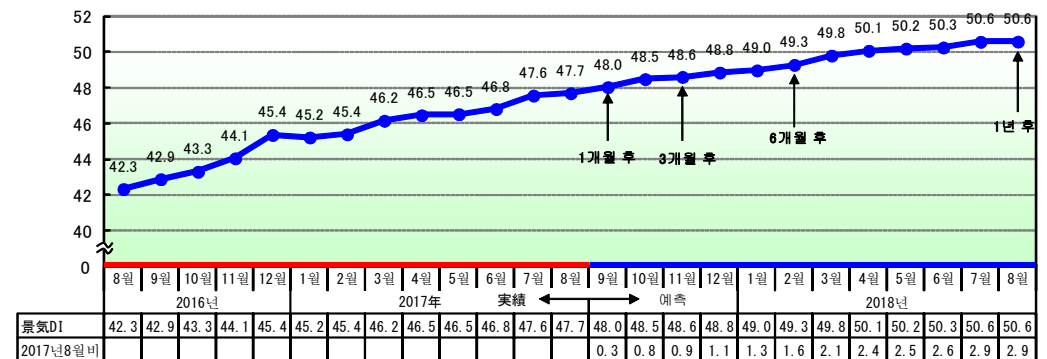


< 2017년 8월 동향 : 회복세 지속 >

2017년 8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.1포인트 증가한 47.7로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. 유효구인배율이 고수준으로 추이하는 등 고용·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, 예코카 세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 등의 내구소비재가 물건교체시기에 맞물린 점이 플러스로 작용하였다. 또한 재해복구·부흥공사나 도쿄올림픽수요도 호재로 작용하여, 복수의 업계·규모·지역에서 2014년 4월 소비세율인상 후 최고치를 갱신하였다. 한편 8월은 도쿄도심에서 21일 연속으로 강우(降雨)를 기록하는 등 동일본을 중심으로 기상악화가 지속되었다. 장마가 여름휴가와 오봉(お盆)연휴와 겹쳐 레저 등 개인서비스나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쳤다. 국내경기는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장마가 영향을 미쳤으나 내구소비재의 판매 호조 등으로 소비세율인상 후 최고치를 갱신하여 회복이 지속되었다.

< 향후 전망 : 회복세가 지속 >

해외경제는 하락할 듯 하락하지 않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,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자동차부품의 지속적인 수출증가로 외수는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 내수는 도쿄올림픽관련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대형개발, 그리고 기업수익호조로 인해 인력부족대책으로서 성력화(省力化)투자 등 설비투자의 활발화가 예상된다. 또한 고용환경의 개선과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으로 개인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. 한편,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정책과 북한관련 문제 등 해외정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. 향후 국내경기는 건조한 외수에 더불어 설비투자나 개인소비와 같은 내수관련의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

※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